

## 제출양식(Proposal)

### 온라인 비주얼 아트를 활용한 한글 교육 및 한국 문화 콘텐츠 개발 제안

윤 나 효

#### 1. 서론

##### (1) 연구 배경

낯선 외국에서 생활 할 때,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국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우리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몸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한국이 충분히 다채롭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오며 살아왔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눈에 비추어진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 대부분이 북한을 주제로 한 대화가 오고간다. 실제로 2014년 시행된 대통령 직속 국가 브랜드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Korea'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3년 연속 '북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비율(단위 : %)
북한	24.5
경제	23.0
문화	14.6
지역(서울, 동아시아 등)	13.9
음식	13.5
품질 좋은 제품	12.9
국가 체제(민주, 독재 등)	11.9
한류 스타	11.6
일류 기업	10.3
친절	9.6

\* 2012년 해외 거주 외국인 1만 2500명에게 설문한 결과  
(복수 응답), 출처 : 국가 브랜드 위원회

[표1] 한국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 '딱딱한 나라', '재미 없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한류나 IT선진국 등의 요소가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여태까지의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를 바꾸기에는 그것의 유명세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딱딱한 이미지를 녹이기 위해서는 보다 직관적이고 한눈에 한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이에 온라인 비주얼 아트를 활용한 한글 교육 및 한국 문화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는 바이다.

#### 2. 본론

##### (1) 현 한국 교육 콘텐츠 현황 및 문제점

한글 및 한국 역사나 문화를 다루는 교재는 한국에 관심있는 외국인들이라면 반드시 접하게 되는 매체이다. 그만큼 교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관련 콘텐츠를 다룬 교재는 단순한 학습 수단을 넘어 서서, 한국의 전체적인 이미지 형성에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어를 익히는 학생들은 가장 검증된 콘텐츠라고 여기는 교재에 철저히 의존하여 한국에 대해 공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면만으로 구성된 교재는 상당히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는 어려울 수 밖에 없고, 소위 '한국적인 것'이라 불리는 한국 문화는 외국인들에게 낯설 수 밖에 없다.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와 문자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전통 및 기본 생활 패턴 역시 상당히 상이하게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이해 자료 및 교육 콘텐츠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다른 국가 자료에 비해 수도 현저히 적고, 교재의 디자인 및 구성 역시 세련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국어 교재의 대부분은 두꺼운 사전을 연상케 하는 경우가 많다. 지면 구성은 철저히 텍스트 위주이고, 시각적 효과를 보여주는 요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한글의 제자 원리, 발음 원리 등이 모두 텍스트로 설명되어 있어 한눈에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한국의 문화 및 역사를 다룬 콘텐츠 역시 텍스트로만 전달하려다 보니 전달되는 메시지의 내용에 한계가 있다. 일례로 한국학 중앙 연구원에서 발행한 한국 이해 자료의 경우 교과서 자체가 전부 텍스트이다. 보기 쉬운 도표는 전무하고, 사진의 수도 굉장히 적다. 이와 같은 콘텐츠 구성 방식은 한국의 딱딱한 이미지를 더욱 고착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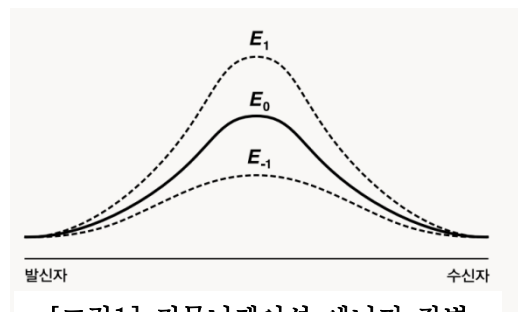
둘째, 현재 배포되고 있는 한국 관련 콘텐츠는 학술적인 부분에 치우쳐, 실용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다루는 비중이 적다. 이에 따라 한국을 다룬 모든 콘텐츠에서 유교적인 색채가 너무나도 짙게 나타났고, 문화 소개 책자 역시 지나치게 전통적인 이미지만이 강조되어 있다. 새롭게 성장한 IT한국, 한류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학 한국어 학과에서 사용하는 교재 역시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영미권, 유럽권, 아시아권을 불문하고 모두 한국어 수업 및 연구는 한국 문학만을 위주로 진행되어온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실용 한국어'에 대한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문으로서의 한국도 좋지만, '실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

셋째, 종이라는 플랫폼의 본질적인 한계이다. 종이는 텍스트나 사진 같은 정적인 수단으로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일례로, 종이 교재에서는 한국어 발음을 직접 들을 수 없다. 비록 교재에 발음기호가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언어체계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발음기호만으로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것은 무리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이해영 교수는,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외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발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외국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재만으로는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익히는 데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 (2) 현 한글 교육 콘텐츠와 온라인 비주얼 아트와의 융합

위에서 설명한 한글 교육 콘텐츠의 문제점은 1) 적은 수의 교재 수와 세련되지 못한 지면 구성 2) 실용적 한국 관련 콘텐츠 부족 3) 종이 플랫폼의 한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한글 교재가 의존하고 있는 '종이'라는 올드 미디어 플랫폼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기존의 텍스트 위주 내용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조금 더 세련되고 직관적인 교육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현 한글 교육 콘텐츠와 온라인 비주얼 아트의 융합을 제안한다.

온라인 비주얼 아트란 인터넷 플랫폼 상의 인포그래픽, 타이포그래픽과 같이 시각적으로 디자인된 데이터를 말한다. 시각화된 데이터는 정보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장벽을 낮춰주어 메시지 전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한운희, 2014) 평생을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어 교재가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큰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장벽을 가지고 있다. 비주얼 아트는 단순 텍스트로의 전달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장벽을 낮추어 줄 수 있다. [그림 1]의 E1이 한국을 처음 받아 들이는 외국인이 가진 에너지 장벽이라면, 적절한 비주얼 아트의 활용은 그들의 에너지 장벽을 E-1까지 낮추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비주얼 아트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장벽

먼저, 타이포 그래피를 통한 영상 클립을 제작하여 온라인 상에 배포한다. 예를 들면 한글의 우수성과 제자 원리를 글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담은 타이포그래피 영상을 통해 시각적인 접근을 하자는 것이다. 이 방법의 효과는 벌써 검증된 바 있다. 필자는 2014년 베트남 호치민 정보통신 외국어 대학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and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한국어 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로 모든 문법 사항과 한글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그림2]와 같은 타이포그래피 영상을 활용하여 설명을 하고, 움직이는 영상 매체를 보여주자 학생들의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



[그림2] 베트남 학생들과의 수업시간에 활용했던 타이포 그래피 영상 일부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영상콘텐츠에 음성이 가미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한글 교육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기존 교재에서 발음 기호만으로는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기 힘들던 학습자들에게 보다 편한 학습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식 역시 단조로운 텍스트 및 사진에서 벗어나서 세련되게 디자인 된 인포그래픽과 모션그래픽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 저절로 호기심이 생기고, 그들의 기억에 남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림3]과 같이 다채로운 이미지와 세련된 디자인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3] 한식에 대해 시각적으로 디자인된 데이터  
(그림 출처 : 비주얼 다이브)

온라인 비주얼 아트 콘텐츠를 구성할 때, 한국 드라마나 영화, 뮤직비디오 등의 장면을 사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한류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기에, 한류의 존재를 잘 모르던 사람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한류의 존재를 홍보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외국인들이 한국의 다양한 모습과 새로운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교육 콘텐츠가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온라인 상에 한국 문화 소개 콘텐츠를 구성할 경우, 과거와 현대로 나누어 이에 맞는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를 활용하면 학습자들이 원하는 것을 보다 편하게 학습할 수 있다. 학습자에 따라 원하는 것을 골라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3. 결론

#### (1) 기대효과

다양한 영상 콘텐츠와 비주얼 아트로 디지털 저널리즘을 활용하여 한국의 다채로움을 알리는 것이 관건이다. 온라인 비주얼 아트는 단순 텍스트보다 한국이 가진 여러가지 색깔을 한 눈에 잘 보이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혼 교수가 진행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듣고 기억된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약 15%가 기억에 남는 반면, 이미지와 함께 기억된 정보는 무려 89%나 남게 된다고 한다. (박준완, 2013) 이는 온라인 비주얼 아트가 한국 관련 콘텐츠를 담아 내는 데에 상당히 유용한 방식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에 대한 홍보 효과는 물론 한글 및 한국문화 분야의 교육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비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콘텐츠 활용 비율이 높은 10-20대를 겨냥해서 자료를 구성한다면 상당히 가능성있는 콘텐츠로 거듭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은 한국 관련 콘텐츠의 도달률과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기존의 교재만으로는 한국의 다채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기에 너무나도 부족했다. 각종 SNS 및 포털 사이트를 통해 눈에 띄는 구성의 한국 관련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콘텐츠에 대한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에서의 한국 이미지 제고 역시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 결론 및 제언

2016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가 가능했던 것은, 한국이 딱딱하고 무거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다채로우며 젊은 이미지의 한국을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올림픽 챔피언이었던 김연아 선수의 프레젠테이션이나 한국이 올림픽을 진정 즐길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통해, 젊고 역동적인 한국의 이미지가 사람들의 인상에 남은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 관련 콘텐츠 역시 이렇게 적극적이고 다채로운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젊은 콘텐츠 구성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되, 그것이 가지는 여러가지 한계점을 온라인 비주얼 아트와의 융합으로 극복하자는 것이다. 전통적인 올드미디어와 아날로그 메시지의 형태에 뉴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가미해 한국의 다양한 색깔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REFERENCES-

인포그래픽 저널리즘 시각적 흡인력, 밀도 높은 데이터로 심층 정보 쉽게 제공, 한운희, 2014  
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실전 인포그래픽의 이해와 활용 전략, 박준완, 2013

날짜(Date) 2015년 09월 29일

서명(Signature)

